

## [목회자 모임-히브리서] 5. 구원의 창시자

2018. 7. 20. 이현래 목사님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히2:3).”라는 말씀이 시작되었다.

이 큰 구원! 지금까지 여러 면의 구원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일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구원이 있었다. 히브리서 말씀은 마지막 날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셨다.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셨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히2:2,3).”라고 했는데, 5절부터는 그 구원의 창시자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원래 ‘구원의 주’라고 번역했던 것을 이번 성경은 ‘구원의 창시자’로 번역하였다. ‘큐리어스’라는 말이 ‘주’라는 말도 되고 ‘창시자’라는 말도 되는데, 여기서는 ‘창시자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다.

이 큰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이다. <예수 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하나된 사람의 구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천사가 복음을 선포하고,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또 성막이나 여러 가지 모양들을 통해서 복음이 왔는데, 이것은 모두 어느 정도 객관적이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할 수 없다.

성막도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다. 선지자들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듣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것을 상징하거나 할 때는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해석하는 자에 따라서 많은 폭이 생긴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

**아들로 오는 구원!** 이것은 그런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하나된 사람의 말이라는 말이다. 간격이 없이 하나님과 하나된 사람이다. 하나님과 하나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 같다는 말이

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다. 예레미야에 예언된 대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렘31:33).”고 한 것은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의 실현이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시인하면서 만일 그것으로 끝난다면 새 언약의 실현이 안 되는 것이다. 내가 저희에게 세울 새 언약이 이것이라고 했을 때, 어느 한 사람을 보고 한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한 말씀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보편화되지 않는다면 시작은 되었지만 새 언약의 실현이라고 할 수 없다. 새 언약이 보편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보편화되려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보편화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보편화가 될 수 없다.

역시 또 예수님은 하나의 객관자가 되어서 사람에게 와서 무엇을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구약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게 된다.

**우리는 예수와 하나되는 것이 목표가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분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분을 연구하거나 탐색하여 하나님을 알 방법은 절대로 없다.

성경 어디에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연구하거나 추구하여 알았던 데는 아무데도 없다. **그분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찾아오셔서 어떤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불안정한 관계이다. 왜냐하면 따로따로이다. 그분은 그분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다. 그것이 구약의 관계이다.

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엄청난 혜택을 입고 사실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에게 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분을 내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분과 내가 하나가 아니니까 언제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 꼭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처럼 언제 뜰지 언제 내려앉을지를 모르는 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무소부재하다는 그 하나님이다.

어디든지 있지만 희랍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처럼 어디든지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알고 보면 어디라도 내가 너희를 찾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네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계실 것이고, 네가 어디를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 있겠다는 이 말은 그분이 따라 온다(찾아온다)는 뜻이지 내가 어디든지 가서 만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것이 오해되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니까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어디서든 만나겠는가?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성막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곳을 정해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당연히 우상을 숭배한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는가? 모세가 산에 올라간 후에 모세를 기다리고 있다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던 신은 없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만들자고 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다.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기 마련이다. 하나님을 찾아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는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구하면 되는 줄 안다. 두드리면 되는 줄 안다. 그렇게 된다면 무엇하러 성막을 만들겠는가?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지 사람이 찾아갈 수가 없다.** 어디에 계신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디로 찾아가겠는가? 무소부재 하신다는 말은 없는 데가 없다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계신지를 모른다는 말도 된다. 어디 계신지를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겠는가?

서울에 가서 이름만 가지고 그 사람을 찾겠는가? 찾기가 어렵다. 동사무소나 시청에 가서 탐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어디에 계신지 모르는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찾겠는가? 찾는다고 하면 우상 숭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이 찾아오신다. 지금까지 찾아오셨지 우리가 찾아가간 하나님은 없다. 이방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찾아가서 우상을 만든다. 희랍인들은 하나님을 연구한다. 하나님을 연구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우상을 만든다. 신학을 만들어도 그것도 우상일 수 있다. 하나님을 연구한 것이니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닌 이상에는 모두 우상이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은 다 우상이다.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거나 저럴 것이라고 연구를 하면 학문이 되는 것이니까 모두 사람이 만든 것이다.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우상이다.

이런 하나님을 놓고 논쟁을 한다. 내 하나님이 옳다, 네 하나님이 옳다고 논쟁을 하는데 너무나 우스운 일이고, 되지 않을 일이다. 각자 사람이 만들어놓고 어느 하나님이 옳다고 주장을 하면 끝이 나겠는가? 찾아오신 분을 놓고도 이러니저러

니 하는데, 사람이 만들어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논쟁을 하면 답이 나오겠는가? 끝이 없다. 갈수록 복잡해져 간다.

신학도 옛날에는 단순했는데 지금은 복잡해진 것 같다. 철학도 마찬가지이다. 점점 복잡해져 간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데, 아들로 찾아온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왔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한 실체로 우리에게 왔다는 말이다. 이것이 결국 마지막이다.

동산에 있던 아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한 생명으로 연합해야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한 생명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로부터 생명을 받으니까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 일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고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해도 선악을 아는 지식이다. 열심히 하든지 정성껏 하든지 충성을 하든지 전부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한다. 생명으로 할 수가 없다. 생명나무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생명으로 하겠는가?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저 사람은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의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과 생명관계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는가? 이 연합을 표시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먼저 여러 생물들을 이름을 지으라고 했다.

이름을 모두 지은 다음에 아담이 이름한 바가 곧 이름이 되었더라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그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한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아담과 같은 생명이 없다는 뜻이다.

배필이 되려면 한 생명이어야 된다. 갈빗대는 내 생명이니까 생명을 빼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창2:23).”**라는 말이 나왔다. 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생명을 보고도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는 말씀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최종적인 복음이다.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이것이 최종적인 복음이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것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이다. 둘이 갈라져 있는 것이 문제이고,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것이 문제이다.

차라리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더 낫다. 왜냐하면 어차피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찾아가면 결국은 자기의 하나님을 만든다. 자기 하나님을 만드느니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한번 생각해보라. 종교 안에 들어간 사람이 오히려 종교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보다 못한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이다.  
예수를 믿는데 더 못한 사람이 생긴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우상을 섬긴다.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이지만 기독교가 대표적인 종교 이니까 기독교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 **이 큰 구원! 이것은 마지막 구원이라는 뜻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된 구원, 말씀과 육체가 하나된 구원,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된 구원, 모두 한 생명의 문제이다.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토론이 불가능하다.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토론을 하겠는가.

**이것은 복음이다.** 복음이 선포된 것이다. 우리에게 토론해 보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느냐 못 받느냐만 있는 것이지 토론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다. 더 찾아낼 수도 없다. 학문은 토론하면 된다. 일도 토론하면 된다. 하지만 복음을 어떻게 토론하겠는가? 복음은 토론할 수가 없다.

전능자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받느냐 받지 않느냐만 있을 뿐이지 토론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 만들었느냐 만들지 않았느냐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물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꾸겠는가? 바꿀 수가 없다. 물은 물이니까 내가 물로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만 남아 있는 것이다.

복음도 그렇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토론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그것을 토론할 수 없다. 그것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밖에 없다.

### **이것이 너무 큰 구원이다. 마지막 아들로 온 구원이 너무 큰 구원이다.**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몇 마디나 되는가? 사실 몇 마디 없다. **아들로 온 구원이라는 뜻이다.**

히브리서 2장을 읽어 가면 맏아들이라는 말도 나온다. 구원의 창시자는 맏아들이라고 한다. 자기만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를 선두로 맏아들로 해서 아들이 보편화되는 시대이다.

모두 아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다. 모두가 하나님 아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다. 누구는 멸망 받고 누구는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완전한 복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당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한 집안에서 남편은 천당에 가고, 아내는 지옥에 갔다면 그것이 복음인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천당에 가고 아들은 지옥에

갔다면 그것이 복음인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만민이 모두 하나님 아들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복음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것이 마지막 복음이다. 예수 복음이다.** 예수 복음은 이 만민을 위한 복음이지 천당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을 가르기 위한 복음이 아니다. 예수를 하도 믿지 않으니까 헐박조로 말한 것이다. 그때 당시의 사정은 그랬을 것이다. 하도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간다고 헐박을 해서라도 구원을 해보겠다고 한 말일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는가?

### 이 큰 구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히2:6).”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되었느냐는 것이다.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히2:7).”고 한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뛰어내리지 못하니까 천사보다 못한 것이다. 그 점에서 사람은 천사보다 못하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라고 했다.

예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할 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니까 속았다고 생각했다. 제자들까지도 그랬다. 이상한 일이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아들이로서 예수를 보았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참 허망한 일이었다.

나는 요즘 그 말을 자꾸 한다.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를 자꾸 이야기한다. 처음 내가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를 했다. 나는 옛그제 한 것 같은데 써놓은 것을 보니까 수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다. 더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자꾸자꾸 든다. 옛그제도 어떤 자매가 한 명 왔는데 그동안 상당히 헤맸던 모양이었다.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저기서 치이고 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했다. 옛그제 와서는 울면서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 알겠다고 했다.

우리 교회 온지 10년이 넘었다. 이것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는다고 생각한다. 살아난다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 자매도 신학교를 나왔다. 순복음 계통의 신학교를 나오고, 대구에 와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간호대학에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여 간호사가 되어 지금은 양호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벌써 10년이 넘었다. 신학을 공부했는데도 그렇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골치 아프구나. 반대로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죽는다는 사람은 맹탕이다.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이구나. 왜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가? 분명한 사실인데 감추어져 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사랑방에는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마귀의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들리는 모양이다. 그런데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했다. 뛰어내리지 못한다는 말이 마귀의 말이 아니고, 이것이 마귀의 말이다. 뛰어내려 봐라, 너는 뛰어내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 마귀의 말이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오해하여 써놓았다.

좌우지간 말을 해놓고 보니까 파장이 복잡하다. 그래서 계속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잘못하면 혼란만 가져오게 될 것 같다. 예수께서는 마지막에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 예수께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려져서 예수를 믿으면 천당을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으로 돼버렸으니까 얼마나 왜곡되어버렸는가?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긴가 민가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전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다. 참 이상한 일이다. 너무 이상한 일이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째서 그것이 그렇게 들릴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럴 것이다. 거기에 있는 어떤 영광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그냥 보면 너무 비참하다.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 올 때는 희망을 가지고 따라 왔다. 갈 때는 절망하여 가 버렸다. 그 자리를 보니까 너무 절망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떠들고 다녔는가? 목숨 걸고 떠들고 다녔다.

그때 그 사람들도 보면 완전히 절망하고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셨다. 그래서 어리둥절하여 예수를 맞이했다. 40일 동안 함께 있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알았는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다시 떠나셨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서 다락방에 모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각 지방의 사람들이 왔다고 한다. 광고하고 모였는가? 그것도 아닐 것 같다. 왜 그날 그렇게 모였는

지를 잘 모르겠다. 오순절이라고 모였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이적이 일어나서 거기서 사람들이 뒤바뀌어져서 나가서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전파를 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다. 오순절 사건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에게 뭔가가 왔다. 오순절 사건을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왔다. 이것은 결국 계시를 받은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이 우리와 연합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2:20).” 이것을 십자가를 본 일이 없는 사람이 한 말이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바울이 참 귀중한 위치에 있다. 만일 베드로만 있고 그때 있었던 그 사람들만 있었다면 우리는 정말 난감할 뻔했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공모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와 합하기 위해서다. 연합하기 위해서다.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연합될 수 없다는 말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신다. 하나님과 사람 둘 사이를 연합시킬 것은 십자가 밖에 없다.

하나님도 십자가에 와서, 사람도 십자가에 가서 둘이 연합이 되는 것이다.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도 사람에게 올 수 없고, 사람도 하나님에게 갈 수 없다. 이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들었는데, 이상하게 왜곡시켜버려서 희생이니 봉사니 사랑이니 이런 것으로 바뀌어져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문제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었다는 것이다.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었다는 말이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분리에서 온 것이다. 하나님과 분리된 데서 온 것이다. 이것을 그냥 놔두고 인간을 무슨 수로 구원하겠는가?

우리가 구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디로 무엇을 구원했는지 모르겠다. 한 10년간을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때도 구원 어쩌고 했을 텐데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한 말도 기억이 안 된다.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된 줄을 알아야 구원이 있든지 말든지 할 텐데 어디서 어

떻게 된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겠는가? 그때 나는 제일 의문이었던 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는가였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모른다.

왜 나는 이탈되었는지를 모른다. 이탈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도 모른다. 그가 내게로 오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어떻게 이탈되었다는 것을 알겠는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양심의 문제이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다. 모르니까 맨날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전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알아야 원위치로 회복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다.**

나는 10년을 그랬다. 뭐가 뭔지를 모르고 하여튼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참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준 것이 뭘 주었는지를 모르겠다. 좋은 사람으로서의 인상만 남아있어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지만 참 딱하다. 새삼스럽게 말하려고 하니까 말하기가 어렵다.

이번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마침 우리 이웃에 단신으로 이사를 왔다. 이야기를 들으니 자기도 목사라고 한다. 주일에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다고 한다. 저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가 싶어서 같이 놀자고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았다. 이 사람이 무섭게 신앙이 좋다. 완전히 원시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어디부터 잡고 일어나야 할지를 몰라서 나는 한 마디도 못하고 할 수 없이 생명의 목장 책 한권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했다.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소속인지를 모르겠더라. 어디를 잡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책을 주고 읽어보라고 했는데, 책을 읽고 어떤 반응이 올지는 모르겠다.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있었다. 대화를 못할 만큼 멀리 떨어져있다. 기독교가 2천년 동안 전파가 되었는데, 뭐가 전파되었는지 모르겠다.

**이 아들의 구원!** 아들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면 뭘 해도 마찬가지로이겠구나. 역시 도로 그 자리이고 그 자리이겠구나. 하나님을 각자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믿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히2:7).”** 왜 천사들을 비유하고 있는가? 사람의 문제는 천사와 관계된 문

제이다. 천사가 와서 너는 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느냐? 너는 왜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하느냐? 알고 보면 이렇게 한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3:5).”**는 이 말은 너는 왜 돌로 떡을 만들어먹지 못하느냐? 배고픈데 왜 그것을 못해먹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왜 십자가에 못 박으면 뛰어내리지 못하느냐? 이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당연히 물었을 것이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한 것이다. 만일 정말로 말 잘하는 사람이 와서, 또 정말 능력있는 사람이 와서, 내 말대로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도 뛰어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하지 않겠는가? 세상에 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간 믿음이 좋아서는 안 된다.

나라도 정말 죽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에 지옥 갈지언정 안 죽는다고 하면 해볼 만한 일이다. 뿌리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아담이 먹었다. 쉬운 것을 그냥 먹었겠는가? 우리 인생의 대표자가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시원찮아서 먹었겠는가?

**사람은 천사에 비해서 항상 열등하다. 천사를 흠모하고 있다.** 왜 사람은 천사만큼 못하냐? 천사처럼 되지 못하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인생 근본 바탕에 깔려있다. 그래서 능력을 사모하고 힘을 사모한다. 능력이나 힘을 찾는 것은 천사 때문이다.

이 우주 안에 만일 천사가 없다면 사람은 불만스러울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모든 만물보다 사람이 제일 낫기 때문에 불만스러울 것이 없다. 그런데 이 죽지 않는 천사가 있다. **같은 피조물인데 왜 저 천사는 죽지 않고 사람은 죽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 문제의 근본이다.**

거기서 지식의 세계와 갈라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한 어떻게 고치겠는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고치겠는가? 또 의사라는 사람도 모르는데 어떻게 고치겠는가? 병을 알아야 고친다. 의사라는 사람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모른다. 내가 10년 동안 돌팔이 노릇을 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모르고 했으니까 그렇다. 그러니 뭘 고치겠는가? 병을 알아야 뭘 고친다. 감기가 들었는지 배탈이 났는지를 알아야 고치는데, 이것을 모르니 어떻게 고치겠는가?

**우리는 이탈된 자리가 있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내가 이탈된 자리를 모르니 돌아갈 수가 없다. 아무리 회개해도 안 된다. 모르는데 어디로 회개를 하는가? 참 심각한 문제이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다.

다른 종교는 그만두고라도 기독교 안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다. 맨날 회개를 하지만 어디로 회개하는가? 백날 회개를 해도 갈 데가 없다. 무슨 문제로 회개를 하는지 문제를 모르는데 무슨 회개를 하겠는가? 기도를 하면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

**아들의 구원! 아들로 왔다는 이것으로 회복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구속이 아니라면 그 자리가 필요 없다. 단지 종교적인 고난에 불과하다. 어느 종교라도 핍박이라는 것은 있다. 고난이라는 것은 다 있다. 그런 것에 불과하다. 순교에 불과하다.

예수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특별한가?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이다. 예수와 함께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구속이 되고, 그 자리에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지 따로 죄를 없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위치로 돌아가지 못한 그 죄이니까 원위치로 돌아가면 죄가 없어진다.**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주시겠는가? 하나님이라도 죄를 없애주실 수가 없다. 그 자리에 있는 것만이 죄가 아니다. 그 자리에 없는 것은 모두 죄이다. 이탈된 것이다.

죄라는 것이 이탈이다. 이탈된 것을 다른 데 놔두고 어떻게 용서를 하겠으며, 그것을 어떻게 풀어주겠는가? **그 자리에 돌아오기만 하면 원인무효가 된다.** 그것이 원인이기 때문이다.

열이 아픈 것의 원인이었다면 열만 없으면 해결된다. 식중독이 문제였다면 식중독만 해결되면 다 해결이 된다. 식중독에 걸려서 배를 쥐어뜯으면서 설사를 몇 번 하더니 토했다. 온 몸이 떨리기 시작하는데 사시나무 썸다더니 그랬다.

어떻게 떨리는지 감당이 안 되고 이불을 덮어도 안 된다. 어찌나 떨리든지 온 몸이 오그라들어서 업혀서 병원 응급실에 갔다. 거기에 가니까 주사 한 대를 혈관에 넣더라. 바늘을 빼기 전에 이 아픔이 그냥 싹 가라앉더라. 정말 신기했다. 그것이 물핀이다. 의사가 아직 바늘을 뽑기도 전에 가라앉아버린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세상에 나는 몸이 그렇게 편한 것을 처음 보았다. 우리가 잠들기 직전의 상태처럼 잠들기 직전의 싹악 가라앉는 그 기분이 나면서 온 몸이 풀어지는 것이다. 원인 무효가 된다는 것이 그런 것이다.

**우리가 원위치로 돌아오면 원인 무효가 되는 것이다.** 위치만 찾으면 원인무효 되는 것이다. 내 힘으로는 위치를 찾을 수가 없다. **예수 안에서 그것이 원위치다.**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한 그 자리가 우리의 원위치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시인하면 나는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분과 함께 보좌 우편도 그분과 함께 지옥에 가더라도 그분과 함께 어디가도 그분과 함께이다. 내가 그분과 연합된 것이니까.

내가 예수를 모시고 다닐 수가 있는가? 데리고 다닐 수가 있는가?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안될 것이다. 모시고 다니는 것도 안 될 것이고, 데리고 다니는 것도 안 될 것이다. 다 큰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다니겠는가? 다 큰 사람을 어떻게 자기 안에 넣고 다니겠는가? 불가능하다.

**아들로 오신 예수! 이 사람은 그냥 혼자서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고 원위치로 왔으니까, 우리를 원위치로 회복시키는 분이다.** 그리고 원위치로 회복되면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했으니까 그것이 어디 가겠는가. 지금도 있다.

하나님 말씀이 취소되겠는가? 그냥 그대로 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한 그대로 있다. 위치만 바뀌지면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된다. 모든 것이 다 알아진다.

새 언약 안에서는 그날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라하지 아니할 것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다 알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알아진다.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뒤바뀌었는데 모든 것이 달라진다. 위치가 달라졌는데 모든 것이 달라진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 그분과 하나 된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 뛰어내려라. 너는 못 뛰어내릴 것이니까 너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이것이 마귀의 말이다. 뛰어내려봐라. 보나마나 너는 못 뛰어내릴 것이니까 너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이것이 속은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뛰어내리지 못해도 하나님 아들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로 사람의 자리이니까, 그 자리가 진짜로 사람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된 것이지 그분이 뛰어내리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인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모두 그렇게 속았다. 뛰어내릴 수만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속았다. 그러니까 뛰어내리지 못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속은 것이다.

뛰어내리지 못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들이다. 그것이 진짜 사람이다. 그것이 진짜 사람이다. 뛰어내리면 사람이 아니다. 만일 뛰어내렸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면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뛰어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

나님 아들이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다. 돌로 떡을 만들면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속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지어졌으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그것이 사람이다.**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형상이니까 언제든지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움직이시는 것이고 우리는 형상이다. 형상이 무슨 능력이 필요한가? 형상은 아무 능력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옛날에는 얼마나 능력을 찾았는지 모른다. 일하는 세계에 들어가니까 전부 다 능력이다. 교회에 있다가 C.C.C.에 가니까 거기는 능력이 더 필요하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여기가도 안 되고 저기가도 안 된다. 꼭 능력이 있어야 된다.

당장에 일을 하려면 능력이 필요하다.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하고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다. 능력이 없으면 목회도 못하고 다 못한다.

그런데 **형상으로서의 우리 인간은 능력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내 능력이 없어야 하나님이 하시지 내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뭘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형상을 주실 때,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 자기가 쓰시려고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들었으니까 능력이 다른 것이 없고 쓰시기에 합당한 것이 그것이 능력이다.

아브라함이 왜 100세에 아들을 낳았는가? 그것을 무슨 자랑이라고 써놓았는가? 그런데 그것이 자랑이다. 이삭이 눈이 멀어서 동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축복을 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정통으로 맞아 들어갔다. 하여간 모르고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맞는 축복이 됐다. 그것이 아들의 권세이다.

이삭의 모든 일생은 하나도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전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렇게 되어 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할 때도 자기 정신으로 축복한 것이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축복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인정하시니까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형상이니까 쓰시면 쓰시는 대로 쓰이는 것이지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잘해도 그분 것이고 못해도 그분 것이다. 내 것이 아닌데 그것이 모양이 좋으면 뭐하겠는가? 모양 좋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열매가 맺히면 자기 것이 아니다. 주인이 가져간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느니 존귀와 영광을 한 몸에 받았다느니 이렇게 말 한 것이다. 그것이 영광스럽게 보이고 존귀하게 보이고 이것이 복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저것이 참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가 안정이 된다. 평안해진다. 아무 문제가 없어진다.**

그 자매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한다. 이제 그것을 조금 아니까 자기가 편안해졌다는 것이다. 항상 불안했던 자매이다. 자기는 마음이 약하고 옆에서는 자꾸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내가 그 말씀을 알고 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뭔지, 뛰어내리지 못하는 것이 뭔지 조금 알고 나니까 그것이 싹 풀어진다는 것이다. 안정이 된다고 했다. 울면서 그 이야기를 일부러 하러 왔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지만 자리가 안정되지 않는데 어떻게 안식이 되겠는가.

**예수의 구원, 아들의 구원은 인격회복의 구원이다.** 우리 인격을 회복하는 그런 구원이다. **인격의 회복은 결국은 위치의 회복이다.**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지어진 그것이 우리의 위치다.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는 모른다. 하나님이 모양이 없는 분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성경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형상이 있는가? 모양이 있는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지 말라고 한다.

왜냐하면 사람을 자기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이다. 우리 자신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내가 연구해서 만난 하나님, 내가 철야해서 만난 하나님, 내가 산기도 가서 만난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

**이 구원의 창시자를 죽음을 통해서 온전케 했다고 한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케 했다는 말이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함이 마땅하다. 이 고난이 없이는 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다. 정체를 드러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져야 했다.

이 고난이 없이도 하나님 아들로 보여졌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고난이 없을 때는 다른 것을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 그분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 아들

이라고 했다.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구나. 아마 지금도 그런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따라 다니면서 신났다. 하나님 아들과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또 얼마나 허무하겠는가? 신났던 일이 얼마나 허무해졌겠는가?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고 했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이 속은 것이 지금까지고 속고 있으니 창세기에서 속았던 그 속은 것이 예수님에게서 속고 그 속은 것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 아직도 얼마나 속을지 모른다.

**우리의 복음 전할 사명은 여기에 있다.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 속은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것이 있는 한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을 해도 다 안 된다. 거기에 매여 있는데 뭐가 되겠는가?

개를 묶어 놓으면 그 자리에서 뱅뱅 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도니까 잔디밭에 묶어 놓으니 놀라운 일을 보았다. 진드기들이 온 몸에 들어붙어서 뒤로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들어붙었다. 그 자리에서 돌고 있으니, 그 놈이 제대로 돌아다녔으면 그러지는 않는다.

자기 위치에 있지 않는 개는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았다. 동물병원에 가서 말을 했더니 무슨 약을 주었다. 그것을 물에 타서 양동이 큰 것에 담고 개를 담그라고 했다. 그래서 조그마한 개니까 담구었더니 다 떨어지는 것이다.

사람도 자기 위치에 있지 않으니 사탄에 목매달려 있으니 오만 진드기가 들러붙어서 못 살게 구는 것이다. 잡아주어도 안 되고 떼 주어도 도로 들러붙는다. 온 잔디밭에 있는 진드기들이 그 개한테로 들러붙은 것 같았다. 내가 며칠간 대구에 있으면서 제주에 못 갔는데, 잔디밭에 진드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무서웠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겠는가? 목메 있는 놈한테는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인생 문제가 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없다. 자기 위치에 안 있으면 진드기가 들러붙는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하다. 그가 뛰어내리지 못한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마귀는 조롱을 했지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구속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어디에서 떨어진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찾아가겠으며 겨우 찾아간다고 해도 정직하게라든지 믿음이 좋게라든지 그런 것뿐이지 찾아갈 데가 없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믿음만 있으면 가는 줄로 생각을 한다. 그 믿음만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 아브람이 그 믿음으로 낳았는데 뭘 낳았는가? 이스마엘을 낳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행위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는다.

이것이 맞는 말인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라는 말을 믿었다. 그것을 믿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고 한다. 이 말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러면 의로 여겼는데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왔는가? 이스마엘이 나왔다. 이삭을 낳는 데까지는 그것도 효과가 없다. 이삭을 낳는데 가니까 믿음도 없어졌고 아무것도 없어졌다. 100살에 찾아오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라는 장막 뒤에서 웃었다고 되어있다.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이 끊어졌다는 말이다.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삭을 주었다. 나는 왜 그렇게 그것이 복음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 말을 들을 때 왜 그 말이 내게 꽂혔는지 모르겠다. 어찌면 절망적인 것이다. 믿음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나?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너무 너무 좋았다. 믿음도 한계가 있었다. 무작정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말할 때는 행위보다는 믿음이라는 말이지 믿음이 전부 아니었다.

하나님의 선물 주심이 우리 믿음에 있지 않다는 말이다. 그분의 자유에 있다.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준다는 바울의 말이 그런 말이다. 줄 자한테 주고, 안 줄 자한테 안준다고 하면 우스운데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께서 주실 자에게는 주고 안 주실 자에게는 안준다고 말했다. 결국은 우리가 모른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뜻이다.

**인격회복!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 인격 안에 그 위치 안에 모든 축복이 함**

**축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잃었다. 모든 것을 다 잃어 버렸다. 위치를 이탈했으니까 다 잃어버렸다.

대통령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치를 빼앗겨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끌려 다니는 것 밖에 없다. 직위 하나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그렇게 달라져 버린다.

군대는 별 하나와 두 개와 세 개가 붙어있는 권세가 엄청나게 다르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을 떼고 나면 아무것도 안되고 아무것도 없다. 맥아더 장군은 태평양 사령관이었다. 2차 대전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해임되니까 아무것도 없어져버린다.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져갈 뿐이다.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

**인생이 인생의 위치를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다.** 쓸데없는 것만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위치 회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 위치 회복 그 속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해놓으신 모든 것이 들어 있다.**

예수를 그렇게 찬양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그분의 영광을 찬양한 이유가 그 위치 안에 있는 영광이다. 우리 인간도 누구든지 위치가 회복되면 다 그와 같은 영광이 있게 되어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놓았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났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에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 한다. 왜? 한 근원에서 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놀라운 복음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복음이고 이렇게 누군가가 발견했다는 것은 놀라운 복음이다.

한 근원에서 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온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만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모세 다윗이 다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수 한 사람을 알면 다 아는 셈이 된다.**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알고 야곱도 알고 다 안다. 왜?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위치로 회복되면 우리 안에 또 역시 그렇게 포함된다. 만유가 다 포함되게 된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인격의 위치! 이것은 만인이 다 동일하다.** 인격의 위치는 동일하니까 누구라도 다 받을 수 있는 구원이다. 재능은 다르고 능력은 다르지만 인격의 위치는 동일하다. 회복 안에서는 다 하나이다.

이 인격이 회복되면 예수님과 우리도 하나인데 누가 하나가 아니겠는가? 다 하나이다. **인격은 하나밖에 없다.** 만유를 포함한 인격도 마찬가지로 하나밖에 없다. 예수 안에 만유가 포함되어 있다. 놀라운 일이다. 존귀와 영광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축복이 다 그 안에 배정되었다.

개는 개에게 축복이 배정되어 있고 소는 소에게 축복이 배정되어 있듯이 인격에는 인격에 축복이 배정되어 있다. 우리가 쫓아 다닐 필요가 없다. 복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 다 배정되어 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영광이 오죽한 영광인가!** 더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인간은 그 인격을 잃었기 때문에 위치를 잃었고 위치를 잃었기 때문에 축복의 배정에서 벗어났다.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위치를 이탈하고 나면 그 사람에게 배급이 없다. 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권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위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6.25 때 학도병들이 용기만 가지고 군대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니까 위치가 없었다. 그래서 무기 한 번도 못 받아보고 보급품 한 번 못 받아보고 지리멸렬하게 다 죽었다.

그들이 소위 무명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어렸을 때 보았다. 그때 피 끓는 청년들이 자원해서 군대에 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졌다. 무기 있는 사람도 죽는데 무기 없는 군인이 어떻게 견디겠는가? 사람도 자기 위치를 이탈해버리면 군번 없는 군인과 같이 돼 버리고 만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인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 인격이 회복되면 마귀는 멀해진다. 여기 멀하다는 말은 쓸모없이 돼 버린다는 뜻이다. 마귀가 할 일이 없어져 버린다. 우리가 우리 위치로 회복되면 마귀가 할 일이 없어져 버린다.

자기 직업을 잃어버린 것이다. 쫓아 다니면서 마귀 없앤다고 소리 지르던 때가 언제인데 기도원 같은데 가보니까 마귀 물러가라고 소리치고 난리더라. 소리친다고 그 놈이 나가겠는가? 자기 할 일이 없어야 나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자기 할 일이 없어져 버린다.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뛰어난 리지 못한 것이 그것이 영광이라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져 버린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내릴 수 있는데도 이려고 어찌고 하면 또 마귀가 할 일이 생긴다. 자기 일이 생긴다. 우리가 일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절대로 그놈에게 일을 주면 안 된다.

우리의 어떡함 때문에 마귀는 할 일이 많다. 너무너무 할 일이 많다. 그런데 우리가 위치가 회복되면 마귀는 할 일이 없어진다. 마귀가 할 일이 없으면 천사들이 수종든다고 한다. 마귀는 물러나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천사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진 자들이다. 위치가 회복된 그 사람을 섬기라고 보낸 것이 천사가 사람을 지배하라고 온 것이 아니다.

사람이 제대로 안되니까 충신도 간신이 돼버린다. 임금이 제대로 안되면 충신도 간신이 돼 버린다. 왜냐하면 충신은 잘못된 임금 곁에서 견디기 어렵다. 오히려 간신이 더 살기가 좋다. 그러기 때문에 간신이 우글거린다. 그런데 임금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간신도 간신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충신이 되어버린다.

사람이 사람 위치에 있지 않으면 마귀가 간신 노릇한다. 할 일이 많아진다. 우리는 마귀로 하여금 일할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저절로 없어진다. 밥 먹을 일도 없고 밥도 없고 그러면 저절로 사라진다.

**이 큰 구원! 인격의 회복! 아들의 구원! 지금은 인격을 회복하는 그 구원에 우리가 들어왔다. 예수 안에서 얻을 것은 우리가 그것밖에 없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못 얻는다. 얻을 것이 없다. 위치, 하나이다.

위치! 그것이 전부이다.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아무 것도 줄 것이 없다. 더 이상 따라 다녀봐야 제자들도 아무것도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가고 말았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이다. 우리에게 주는 전부이다. 예수 전부가 우리 복음이다.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모든 것이 포함된 예수의 죽음 안에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해답이 들어 있다.

강단이 아니라 두서없이 이야기했으니 여러분이 잘 정리하길 바란다.  
감사합니다.